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동제(洞祭)의 양상과 전승 동력

최자운

— 차례 —

1. 머리말
2.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동제(洞祭)의 흐름
 - 2.1. 마을회 담당 시기
 - 2.2. 금강사 담당 시기
 - 2.3. 마을회 담당 시기
3.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동제(洞祭) 전승 요인
 - 3.1. 효목(孝木)과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
 - 3.2. 마을 및 개인 단위 주민조직의 활성화
 - 3.3. 주민들의 경제생활 기반 구축
4. 맺음말

[국문초록]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동제(洞祭)는 과거에 비해 의례 인원이 고정되고,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마을 공동체의례의 흐름은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에는 양호한 농사 여건과 높은 인구 밀도, 두 번째 시기에는 마을 사람들의 요구와 금강사 상황의 부합, 세 번째 시기에는 마을 주민 조직 활성화가 동제 진행의 원동력이 되었다.

2022년 현재 충북 영동지역 소재 동제(洞祭)를 지내고 있는 마을에서는 공동적으로 매년 동제를 지낼 수 있을 만큼의 공동기금과 의례를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 경제력과 의례 진행 인력은 동제(洞祭) 진행의 필수 조건이다.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역시 이러한 마을들과 연장선상에 있다.

과거 공동체의례의 일환으로 진행된 세 가지 의례 중 효목(孝木) 제사가 부활할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효목(孝木)과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로, 마을 사람들이 효목을 마을 수호신으로 여기고, 꾸준히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마을 및 개인 단위 주민 조직의 활성화이다. 마을에 대동회(大洞會)와 소동회(小洞會)가 동제의 기반 역할을 하고, 매곡초등학교 농악반 출신들로 구성된 매화풍물단 회원들이 정초 지신밟기 때 중추적 기능을 담당한다. 세 번째는 50대 이하 젊은 층이 고향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경제 활동 기반이다. 금정 오리 가공공장, 삼양화학공업, 포도 과수원 농사는 노천리 젊은 층의 경제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주제어: 동제(洞祭), 공동체의례, 마을회, 효목, 마을 수호신, 주민조직, 경제활동 기반

1. 머리말

2022년 현재 생활 환경 및 사고 방식의 변화 등으로 개인 및 공동체신앙은 그 수가 크게 줄었다. 충북 영동군의 경우 마을에 따라 공동체의례 명맥을 유지하는 곳들이 있으나, 과거에 비해 인원이 줄고, 약식으로 진행하고 있다.²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는 동제 전승 주체가 한 번 바뀌었음에도, 주민 자체적으로 공동체의례를 전승하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다.

이 마을 동제(洞祭)는 그간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 본 연구 대상 및 주제와 상통하는 공동체의례 원동력 관련 연구를 주제 및 연구자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김재리와 박지숙, 안나영³, 그리고 김종대⁴, 박홍주⁵, 이창언⁶은 전통적 형태의 공동체의례가 오늘날 약화되는 요인으로, 전승 주체자의 고령화, 마을사람들의 의례에 대한 인식 변화, 새마을운동의 영향과 그로 인한 생업 터전의 상실, 그리고 의례와 생업의 충돌을 들었다.

공동체의례가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사례도 발견되는데, 서해숙⁷, 박종오⁸, 김월덕⁹, 김종대¹⁰는 각각 호남지역, 전남 여수시

2 2022년 2월 국립민속박물관 주관 충청권 마을신앙 조사사업에 참가하여 충북 괴산, 증평, 영동지역을 조사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였다.

3 김재리·박지숙·안나영, 「당산동 부군당굿의 보존과 전승에 관한 문화기술학적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지』제14권(한국무용기록학회, 2008), 101-128면.

4 김종대, 「양평 성덕리의 당문서를 통해 본 마을신앙의 전승 양상과 변화」, 『비교민속학』 59(비교민속학회, 2016), 311-340면.

5 박홍주, 「부서마을 당산제의 변화 양상에 나타난 문화의 접변 현상」, 『한국민속학』61(한국민속학회, 2015), 205-234면.

6 이창언, 「촌락공동체신앙 전승의 현재적 의미」, 『민족문화논총』49(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1), 219-239면.

7 서해숙, 「공동체문화로서 마을신앙의 활용과 의미 구현」, 『남도민속연구』제18집(남도민속학회, 2009), 139-166면.

8 박종오, 「주체 변동에 따른 공동체의례의 변화」, 『도서문화』35(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0), 187-214면.

9 김월덕, 「정읍지역 마을굿의 지속과 변화의 전개양상」, 『국어문학』45(국어문학회, 2008), 129-144면.

10 김종대, 「새로이 창출된 마을신앙의 전승 방식과 그 기능변화」, 『어문논집』50(중앙어문

거문도, 전북 정읍지역,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 정지리 소재 공동체의례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종교적 의미는 축소되었으나, 사회적 기능은 확대되었다고 했다.

다음으로, 공동체의례가 나름의 전승력을 유지할 수 있는 동인(動因)을 제시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형호는 서울 용산지역 동제당이 생업 방식 및 의식 변화로 인해 위기를 맞았음에도 이곳 사람들은 새로운 의례 담당층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날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¹¹ 권선경은 현재 마을 토박이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울지역 마을굿의 전승 요인으로 마을신앙 담당층의 확대, 마을굿의 공연 예술성 강화를 들었다.¹² 이경민은 경기도 광명시 아방리 산고사가 1960년대 초반 중단했다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최근 부활되었는데, 이때 전래 의례 절차는 지키면서도 변화된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신격이 추가되고 여성의 역할이 부각되었다고 하였다.¹³ 김태우는 서울지역 부군당 의례의 구성 요소를 인적, 물적, 제도적, 내적 요소로 나누어 살핀 뒤, 전승 집단의 조직화와 소수 정예화, 의례의 세속화 및 행사화, 외부적 공조 시스템 구축이 의례 전승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¹⁴ 그리고 박지애는 경북지역 동제(洞祭)의 전승 상황을 점검한 결과, 고령화와 공동화(空洞化)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제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례를 출향인과 주민들 간의 축제로 만드는 한편, 재원 마련을 위해 지

학회, 2012), 265-293면.

11 정형호, 「20c 용산 지역의 도시화 과정 속에서 동제당의 전승과 변모 양상」, 『한국민속학』41(한국민속학회, 2005), 419-457면.

12 권선경, 「도시화에 따른 마을신앙의 변화와 전승 방향」, 『고전과 해석』23집(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7), 37-64면.

13 이경민, 「서울 근교 마을의례의 실천과 지속」, 『서울민속학』2(서울민속학회, 2015), 159-216면.

14 김태우, 「도시지역 공동체의례 주재 집단의 대응전략과 전통의 현대화」, 『한국민속학』48(한국민속학회, 2008), 141-178면.

자체 및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¹⁵ 선행 연구자들은 각 의례에 작용하는 전승 동력으로 의례 담당층 확대 및 축제성 강화, 그리고 외부 지원을 꼽았다.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공동체의례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사례들과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나름의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천리 동제(洞祭)의 흐름을 정리한 뒤 현재 마을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원동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동제(洞祭)의 흐름

2.1. 마을회 담당 시기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는 각성반이 마을로, 인근 마을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았다. 그 이유는 1914년 이후 매곡면 면 소재지였고, 교통이 편리해서 5일장이 섰으며, 농사 여건도 좋았기 때문이다.¹⁶

노천리 앞은 고자천, 물한천, 흥덕천의 물이 합류하는 지점이고, 물줄기를 따라서 핏들보, 집앞보, 뒷만보가 있어 눈에 물 대기가 용이했다. 매곡면 일대가 중산간 지대인 관계로 일조량이 부족하지만 하천 주변으로 펼쳐진 노천들은 일조량이 양호하다.

영동군 토박이들은 영동군에서 생산된 쌀 품질을 이야기할 때 ‘1당지, 2노래, 3마전’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영동군에서 가장 많이 밥맛이 좋은 곳은 황

15 박지애, 「경북지역 동제의 특징과 전승 실태」, 『영남학』제11호(영남문화연구원, 2007), 231-262면.

16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동제(洞祭)는 2021년 6월 9일, 6월 20일 곽정균(1947), 2021년 9월 14일 이종수(1936), 육기영(1946)과의 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간면 당지마을에서 재배한 쌀이고, 그 다음이 매곡면 노래¹⁷, 그리고 마전¹⁸이라는 뜻이다. 지금도 영동지역 노인들은 노천리에서 생산한 쌀을 품질 좋은 쌀로 여긴다.

노천리에서는 한 마지가 150평이다. 20마지기 이상 농사짓는 사람을 텃도지라고 부르며¹⁹, 노천리 중부에 2가구, 하부에 1가구가 살았다. 보통은 3, 4가구가 힘을 합쳐 품앗이로 논을 땀지만, 텃도지의 논은 온 마을 사람들이 가구당 한 사람씩 나와서 일을 했다. 일꾼들이 많다 보니, 쇠, 징, 북, 장구를 가지고 나가 이동할 때 농악기를 연주했고, 논을 맬 때는 논매기 소리를 불렀다.

노천리는 가구 수가 많다 보니, 다른 마을에 비해 농악대 규모가 컸다. 1970년대 초반까지 논맬 때 두레를, 2000년대 초반까지 정월 2일부터 14일까지 노천리 및 인근 마을을 돌며 매년 지신밟기를 했다.

전통적으로 정월 14일 자정에 산신제(山神祭)를 시작으로, 용왕제(龍王祭), 효목제(孝木祭)를 지냈다. 전체 의례 중 마을 사람들은 산신(山神)을 가장 신성시했다. 평상시 산제당 안에 시루, 그릇 등을 보관했고, 제물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구입하였다. 산신제는 헌관(獻官), 축관(祝官), 집사자(執事者), 공양주(供養主) 등이 참가했는데, 이들은 제사 지내기 전에 산제당 아래 찬물샘에서 몸을 깨끗이 씻고, 제사에 임했다.

산신제를 끝낸 제관 일행이 내려오는 것이 보이면 마을 사람들은 용왕제를 참관하기 위해 노천 상부 앞 냇가에 위치한 큰 바위 앞에 모였다. 이때 참석하는 사람 수는 평균 60명 내외였다. 제관 일행은 바위 앞에 제물을 차리고 마을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물이 충분하기를 기원하며 용왕제를 지냈다. 제사는 앞선 산신제와 같이, 유교식 제사 형태로 진행되었다.

용왕제를 마치면 제관 일행과 마을 사람들은 중부에 위치한 효목(孝木) 앞

17 노래는 노천리 별칭이다. 마을 앞을 흐르는 장교천(長橋川)의 내폭이 넓어 유속이 매우 느린 관계로, 느리내 또는 노내로 불리다가 노래, 노천으로 부르게 되었다.

18 마전은 현재 행정 구역상 김천시 대항면 복지리로, 과거에는 영동군에 속했다.

19 텃도지는 원래 터를 빌린 값으로 내는 세(稅)를 이르는데, 이곳에서는 이 돈을 받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했다.

으로 이동하여 한 해 동안의 안녕을 기원하며 효목 제사를 지냈다. 효목이 마을 내에 위치하는 관계로, 이때는 참관 주민 수가 10여 명 정도 늘었다. 세 가지 의례를 모두 마치면 새벽 5시 정도 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음복하고, 다음 해 마을 제사를 담당할 헌관, 축관, 집사를 선정했다. 3명의 공양주는 당시 각 마을 구장이 맡았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그들은 1년 동안 부정을 피하기 위해 몸을 삼갔다. 이들은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마을 부역 등 공동 일에서 빼주었다. 대보름 저녁에 마을 사람들은 뒷산인 달불산에 올라가 달집 태우기를 하면서 달맞이를 했다. 일제 강점기에 동제를 금지했던 터라, 인근 마을들에서는 대부분 동제를 지내지 못했지만, 노천리는 동제 전통을 깨끗하게 유지했다.

2.2. 금강사 담당 시기

2000년대 들어 마을 노인들 사이에서 산신제를 비롯한 마을 제사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었다. 제관에 선정되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이들도 하나둘 생겼다. 전통적 의례와 관련된 금기와 규칙이 너무 엄격했기 때문이다. 그즈음 마을 인근 절골에 위치한 금강사 주지가 마을 제사를 자신들의 절에서 잘 지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마을 사람들 중에서 집안 어른이 돌아가시면 위패를 절에 모시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주지스님은 절에서 동제를 지냄으로써 마을과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고자 했다.

마을회 임원들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사를 금강사에 위탁해야 할지, 어렵더라도 자신들의 손으로 동제를 지내야 할지 선뜻 결정하지 못하였다. 그 무렵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상부 마을 앞 냇가에 위치한 용왕제를 지내는 바위가 유실되고 말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회의를 거쳐 동제(洞祭)를 절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였다.

2003년부터 노천리 동제라고 적힌 위패(位牌)를 대웅전에 모시고 스님들

이 앉아서 염불을 읽으며 동제를 지냈다. 이때는 마을 내 3명의 이장이 제물을 준비하는 공양주 역할을 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절에서 지내는 동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과거와 비교하면 3가지 의례가 하나로 통합되었고, 방식도 불교식으로 바뀌었다. 명맥은 유지했지만 원래 의례의 방식이나 성격은 퇴색되었다.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과 의례 간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2.3. 마을회 담당 시기

2010년대 들어 60대 토박이들을 중심으로 전래 공동체의례를 복원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들은 전래 공동체의례를 지금 되살리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잊혀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다. 때마침 금강사 주지 스님의 노환으로 인해 절에서 지내오던 동제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주민들은 몇 차례를 회의를 한 뒤 마을에서 동제를 지내겠다고 금강사에 통보했다. 그런 뒤 세 가지 의례 중 어떤 것을 지낼지, 방식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2014년부터 마을 사람들이 참석할 가운데 전래 방식대로 효목(孝木) 앞에서 제사를 다시 지내게 되었다.²⁰

마을회 공동재산으로 제물을 마련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과거에 비해 차리는 음식은 간소화되었다. 제물을 준비할 때는 효목 옆에 위치한 풍년 슈퍼를 경영하는 80대 토박이 주민이 적극적으로 돕는다. 지금은 각자의 역할이 분업화되어 전체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된다.

제사 3일 전 마을 노인들이 한 장소에 모여 원새끼로 금줄을 꼬고, 노천리 대동회장이 황토를 준비한다. 금줄 꼬기가 완료되면 당일에 효목 주변에 금줄

20 2014년 이후 동제(洞祭)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으나, 2022년에는 지내지 않았다. 동제를 일주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무엇보다 마을에 초상이 연거푸 닳기 때문이다.

을 두르고, 나무 주변 9군데에 황토흙을 뿌린다. 이는 제사를 앞두고 부정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금줄 및 황토는 헌관 및 축관의 집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의례 참가자 상황을 보면, 육기영(1946) 마을회장이 초헌관을, 황간향교 전교(典敎)로 활동하고 있는 곽정균(1947)이 축관을, 그리고 노천리 상부, 중부, 하부마을 이장들이 공양주를 맡는다. 아헌관과 종헌관, 집례는 상황에 따라 전임 마을회장 및 이장, 노인회장 등이 한다. 이들은 제사 3일 전부터 부정을 피하기 위해 외출을 삼간다. 마을 사람들도 의례를 앞두고 행동을 조심하는 편이다.

2021년 정월 14일 밤 12시에 진행된 효목제사 절차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²¹ 먼저, 의례 참가자들이 제단 위에 제물을 진설하고 촛불을 밝힌 뒤 향을 피운다. 제사를 지낼 준비가 완료되면 의례 참가자들이 제단 앞에 도열한다.

1) 집례(執禮)가 제단 위에 놓인 잔을 초헌관(初獻官)에게 건네고, 잔에 술을 따른다. 초헌관은 두 손으로 잔을 들고 향 위에서 세 번 돌린 다음 제단 뒤쪽에 붓는다. 이는 잔을 가시는 의미이다. 이때는 퇴주 그릇에 따로 술을 담지 않는다. 초헌관은 빈 잔을 집례에게 주고, 삼배한다.

2) 축관(祝官)이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읽는다. 축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²²

維

檀紀 四三五四年 歲次 辛丑 正月 丙寅 朔 十五日 庚辰

老天里 會長 陸基永 敢昭告于

老天里 守護神 伏以 本里一村

今年運數 家家太平 人人安康 五穀登豐 六畜繁殖 祈願于神 謹以清酌 脯果祇薦

于神 尙饗

21 2021년 2월 25일 자정 이루어진 효목 제사 절차는 초헌관을 맡은 육기영, 축관을 맡은 곽정균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22 매년 축관을 맡고 있는 곽정균(1947)이 작성하였다.

노천리 수호신이시어 삼가 고하나이다

엿드려 이 마을 금년 운수대통하고 집집마다 태평하고 사람마다 건강하며 무병장수하고 협동단결하며 화목하고 오곡이 풍성하며 모든 가축들도 잘 번식하기를 축원하오며

삼가 맑은 술과 포와 과일을 제수로 드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3) 의례 참가자들이 효목을 향해 삼배한다.

4) 아헌관(亞獻官)이 분향 후 잔을 올리고 삼배한다.

5) 종헌관(終獻官)이 분향 후 잔을 올리고 삼배한다.

6) 모든 참가자들이 효목을 향해 일동 삼배한다.

7) 축관이 축문(祝文)을 태운다.

8)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간단하게 음복(飲福)한다.

9) 제사에 참가한 사람들 중 개인적으로 정성을 드리고 싶은 이들은 잔을 올린 뒤 삼배한다. 절을 하는 이들에 따라 돼지머리의 입에 돈이 든 봉투를 끼우기도 한다.²³ 참가자들 중에는 올해 소망을 써온 소지를 금줄 사이사이에 꽂아 둔다.

10) 상(床)을 정리하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

2021년 현재 동제를 지낼 때는 마을회 임원 및 이장을 지낸 사람들을 중심으로 20여 명 정도가 참석했고, 다음 날 아침 마을회관에서 아침에 음복할 때는 50여 명 정도가 모였다. 식사를 마친 뒤 마을 농악대가 가가호호 방문하여 동신(洞神)의 은혜가 가가호호 퍼지길 기원하며 지신밟기를 했다.

3.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동제(洞祭) 전승 요인

이 장에서는 2021년 현재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에서 동제(洞祭)를 지

23 개인이 낸 돈은 다음 해 제물 구입 비용으로 사용한다.

낼 수 있는 원동력을 공동체의례 대상과 주민조직, 그리고 마을주민들의 경제 생활 기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효목(孝木)과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

2003년 이후 마을 내에서 산신제(山神祭)와 용왕제(龍王祭), 효목제(孝木祭)를 지내지 않게 되면서 산제당은 관리하지 않아 허물어졌고, 안에 있던 제기(祭器)들도 소실되었다. 용왕제를 지내던 바위 역시 자연재해로 없어졌다. 두 의례는 의례 공간의 소멸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 갔다.

느티나무인 효목(孝木)의 수령은 600년으로, 조선조 중종 14년(1519) 손가락을 잘라 부친 생명을 구한 효자 매한손(梅漢孫)이 심었다고 전해진다.²⁴ 이 나무는 1996년 10월 2일 영동군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주민들은 이 나무를 자발적으로 관리해왔다. 최근에 이루어진 보수는 2010년대 중반 마을 주민이 200만원을 들여 노거수 관리 전문 업체에 의뢰, 가지를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나무에 영양제 주사를 놓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 중종 14년(1519)에 건립된 향토유적 제 53호 매한손 효자문 역시 1946년 주민들에 의해 증건된 뒤 1977년 옮겨 세워졌고, 2007년에 지붕 수리와 새단장이 이루어졌다.

주민들이 효목과 효자문을 성심성의껏 관리하는 이유는 매한손과 관련된 신앙과 연관이 있다. 효자문 뒤쪽에 매한손의 묘가 있는데, 현재 노천리에 매한손의 후손이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덤은 잘 정돈되어 있다. 매한손의 묘소를 별초하면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어, 주민들이 누가 시키지

24 매한손(梅漢孫)은 본래 중국 사람이다. 그의 선조가 고려말 귀화하였고,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에서 터전을 꾸렸다고 한다. 매한손과 그가 심었다는 효목(孝木)과 관련된 사항은 충주의 향토사(충주문화원, 2002)와 영동군청 홈페이지(<https://town.yd21.go.kr/kr>)를 참고하였다.

않아도 묘소를 관리하기 때문이다.

효목(孝木)은 대대로 마을을 수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임진왜란 때 밤이면 소복한 여인이 나무 주위를 돌다가 사람의 인기척이 나면 나무 속으로 들어가 숨곤 했는데, 이 여인이 왜병(倭兵)의 꿈에 나타나 나무에 접근하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여 마을이 임진왜란으로 인한 화를 면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러한 전설 때문인지, 집안 대소사를 앞두고 동네 중년 여성들이 삭망(朔望)에 나무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정성을 들였고,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나무에서 잎이 피는 것을 보고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했다.

1919년 3.1운동 때 2,0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나무 앞에서 만세를 불러, 노천리가 군내 독립운동의 진원지가 되었다. 나무 인근에 3.1운동 애국지사 숭모비(崇慕碑)를 건립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요컨대, 마을 사람들은 효목을 마을 수호신으로 여기고, 꾸준히 관리해 왔기 때문에 효목 제사가 공동체의례로 부활할 수 있었다.

3.2. 마을 및 개인 단위 주민 조직의 활성화

노천리는 상부, 중부, 하부 등 세 개 마을로 구성된다. 2021년 현재 상부에는 64세대, 중부에는 76세대, 하부에는 77세대 등 217가구가 살고 있다. 주민 연령대를 보면, 50대 이하가 15%, 60대가 5%, 70대 이상이 80%이다. 세 개 마을 이장은 모두 60대이다. 이곳은 인근 마을과 비교할 때 60대 이하 연령층이 많은 편이다.

노천리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마을 단위 행사는 양력 1월 5일 열리는 노천리 대동회(大洞會) 및 상부, 중부, 하부마을 소동회(小洞會)이다. 대동회 및 소동회 때는 전년도 회계 결산 및 새해 예산안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마을 대소사가 논의된다.²⁵ 노천리 전체 주민들 중 외지에서 들어온 20여 가구를

25 노천리 마을회 조직은 마을회장, 총무, 감사, 회원으로 이루어진다. 마을회 운영진 임기는 3년이고, 큰 문제가 없는 한 연임하는 편이다.

제외한 주민 90%가 마을회에 가입되어 있다.

노천리 전체 마을 및 상부, 중부, 하부마을에는 각각의 마을회 규약이 존재한다. 노천리 대동회 규약은 2010년 전면 개정되면서 외지인의 대동회 가입 기준이 강화되었다. 대동회 규약 개정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때만해도 와서 살면 동민이라고 생각하고. 막걸리 한잔 내면 넘어가고. 이사 오면 막걸리 내는 사람 있고. 안 내는 사람 있고. 지금은 재산이 많고 불화가 자꾸 생기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임야 같은데, 건물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매매할 이런게 있으면 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도로가 난다든지. 그것 때때 회장님이 초안을 해가지고 규약을 만들어 해놓고.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고 지입금도 내야 하고. 동민 자격도 얻고, 공동 재산에 대한 권리도 가질 수 있고(후략)(2021.9.14. 육기영(1946) 노천리 마을회장 자택 현장조사)

마을회에서는 노천리 인근 임야 및 산 등 마을 공동 자산을 관리해왔고, 자손이 없이 사망한 사람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마을에 기증하면서 마을 재산은 점차 늘어났다. 현재 임야 및 공동 창고 임대료 및 벌채 수입을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공동 분배한다.

토박이들의 고령화가 가속되는 동시에 외지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효율적 마을 공동재산 관리를 위해서 마을회에서는 마을 규약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때 외지인의 경우 마을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마을에 거주하고, 마을회 입회비 50만원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마을 공동재산은 주민들에게 분배될 뿐만 아니라, 마을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대중교통으로 시내를 왕래하기가 쉽지 않은 마을 내 노년층이 마을 안에 목욕탕 규모의 샤워 시설을 건립하자고 건의한 적이 있다. 이에, 마을회에서는 마을 공동기금을 사용하고, 영동군 농촌지도소에서 지원받아 1999년 11월 5일 샤워시설과 찜질방, 휴게실을 갖춘 단층 규모의

노천리 문화생활관을 준공했다.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전까지는 세 마을 사람들이 요일 별로 문화생활관 시설을 이용했다. 마을 공동기금으로 주민 편의시설을 건립하여 사용하는 곳은 영동 군내에서 노천리가 유일하다. 문화생활관은 노천리 공동체 생활의 왕성함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인식 및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 차원의 친목계 수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²⁶ 그럼에도 매곡초등학교 동창생들을 중심으로 동갑계, 같은 연배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골목계, 매청회 등의 친목계가 유지되고 있다.

노천리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 동제를 마친 뒤 매해 지신밟기를 했고, 그 뒤부터는 2, 3년에 한 번씩 마을 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지신(地神)을 밟고 있다. 지신밟기 때는 마을 내 40대부터 80대까지의 주민 20여 명이 참가한다. 매곡초등학교 농악반 출신이면서 현재 먼 단위 농악 단체인 매화풍물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30대부터 50대까지의 마을 주민 10여 명은 노천리 지신밟기가 유지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매곡초등학교 농악반은 1970년대 초 매곡초등학교에 부임한 이종수(1936) 교사에 의해 조직되었다.²⁷ 그는 학생들로 하여금 방과후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교 적응 및 여가 선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악반을 만들었다. 초창기에는 아무 것도 갖추어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농악기 구입 및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종수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매곡초등학교 농악반은 1970년대 중반부터 충북 단위 초등학교 농악 대회에 꾸준히 참가했고, 전국 단위 대회에 출전하여 준우승을 수상한 적도 있다.²⁸

매곡초등학교 농악반에서 농악을 접한 적이 있는 30대부터 50대까지의 주

26 노천리에는 5명 내외로 조직된 위친계(爲親契)가 상부만 해도 20개가 넘었다. 2010년대 이후 상여를 더이상 받지 않게 되면서 이 계는 자취를 감추었다.

27 이종수(1936)는 2022년 현재 매곡면 노인회장에 재직 중이다. 2010년 당시 마을회장 재임 당시 마을 규약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의 고향은 영동군 상촌면 물안리로, 매곡초등학교에서 일하게 된 이후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고 있다.

28 매곡초등학교 농악반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1992년까지 운영되었다.

민들이 주축이 되어 매곡면 단위 농악 단체인 매화풍물단을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영동군 단위 농악 경연대회에서 상위권 수상을 도맡아서 하고, 영동군 대표로 충북 단위 농악 대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매곡면 내 15개 리 중에서 노천리는 30대부터 80대까지의 주민들이 힘을 합쳐 지신밟기를 하는 몇 안되는 마을 중 하나이다.

3.3. 주민들의 경제생활 기반 구축

노천리에는 경제생활 기반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먼저, 1960년대 이후 시작된 새마을운동 때 전기 및 전화 개설, 도로 확장, 지붕 개량, 수도 시설 공사 등이 이루어졌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노천리 하부 39번지에 새마을공장을 세웠다. 건물을 세우는데 필요한 시멘트, 벽돌 등의 자재는 정부에서 지원 받고, 부지 구입 및 공사는 주민들이 수행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주변에서 나는 갈대, 칩 등으로 갈포(葛袍)를 만들어 도매상에 납품했다. 당시에는 공동 운영 및 생산 방식으로 공장이 운영되었고, 수익금 역시 공동 분배되었다. 당시 갈포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새마을공장 운영은 주민들의 경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1980년대 들어 갈포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공장을 개인이 인수하여 금정오리 가공공장을 운영 중이다. 노천리 주민 20명 정도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오리를 자신의 집에 가져 와서 작업해도 되고, 작업량에 따라 수당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업거리로 인기가 많다.

1935년 개교한 매곡초등학교에는 2021년 현재 전교생 20명이 재학 중이다. 학생들은 대부분 노천리 토박이들의 자녀들이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30, 40대 주민들이 마을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천리 50대 이하 남성들은 대부분 과수업과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 노천리 사람들은 대부분 벼농사를 지었다. 농사 여건이 양호하고 쌀

품질이 좋아 자영농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이후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하나둘 등장하였다.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복숭아와 감 과수원을 많이 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포도 농사가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게 되면서, 기존 과수원을 시설 하우스 단지로 전환하여 포도 농사를 주력으로 짓게 되었다. 이 시기 품종은 캠벨이 가장 많았고, 2010년대 후반부터는 샤인머스켓 품종을 생산하고 있다. 노천리 거주 50대 이하 과수 농가 연소득은 영동군내 직장인 평균 연봉보다 높은 편이다.

2000년대 이후 귀농, 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빈집을 수리하거나, 새로 집을 지어 살고 있는 외지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0% 정도이다. 귀촌 가구는 60대 이상이 대부분이고, 귀농 가구는 40, 50대가 많다. 영동군 전체로 보면 귀촌 가구가 월등히 많은데, 노천리는 포도 농사를 짓는 귀농 가구가 전체 외지인의 80% 정도를 차지한다. 전체 귀농 및 귀촌 가구 중 반 정도는 마을회에 가입한 뒤 마을 일에 참여하고, 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곳은 과수업 환경이 양호하여 소득이 나쁘지 않은 관계로, 50대 이하 귀농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매곡면 소재 직장 중 노천리 젊은 층이 가장 많이 다니는 직장은 삼양화학공업이다. 군부대 폐기물 처리가 주된 업무인 삼양화학공업이 매곡면 수원리에 들어설 때 환경 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무척 심했다.

많은 이들이 우려 속에서도 공장 운영은 차츰 안정되었고, 2021년 현재 전체 직원 60여 명 중 매곡면 노천리 30, 40대 주민 10여 명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장학회를 설립하여 2010년 이후 매년 매곡초등학교에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기탁하는 등 마을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매곡면에 주소지를 둔 이들을 우선 채용하고 있어, 노천리 젊은 층의 경제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맺음말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동제(洞祭) 흐름은 편의상 1기, 2기, 3기로 나눌 수 있다. 1기 때는 양호한 농사 여건과 높은 인구 밀도, 2기 때는 마을 사람들의 요구와 금강사 상황의 부합, 3기 때는 마을 주민 조직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동제(洞祭) 역할을 하는 효목(孝木) 제사는 제물 준비, 의례 목적 및 일시는 과거와 동일하지만 의례 인원이 고정되고, 규모도 축소되었음에도 여전히 주민들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효목 제사가 부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효목(孝木)과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이다. 산신제의 경우 마을 뒷산 중턱에 위치한 산신제당이 허물어진데다, 엄격한 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용왕제는 제사를 지내던 바위가 유실된지 10여 년이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부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마을 내에 위치한 효목(孝木)은 마을 사람들에게 꾸준히 관리받았고, 대대로 마을사람들의 신앙대상으로 기능해 왔다.

두 번째 요인은 마을 및 개인 단위 주민 조직의 활성화이다. 노천리에는 매년 1월 5일에 대동회(大洞會) 및 상부, 중부, 하부마을 소동회(小洞會)를 개최한다. 대동회 및 소동회는 공동기금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매곡초등학교 동창생들을 중심으로 동갑계, 같은 연배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골목계, 매청회 등의 친목계가 운영되고 있다. 매곡초등학교 농악반 출신들로 구성된 매화풍물단 회원들이 마을 노인들과 함께 정초 지신밟기를 수행하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세 번째 요인은 50대 이하 토박이들이 고향마을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경제 기반이다. 노천리 50대 이하 남성들은 대부분 과수업과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포도 농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게 되면서, 기존 과수원을 시설 하우스 단지로 전환하여 포도 농사를 주력으로 짓게 되었다. 노천리 거주 50대 이하 과수 농가 연 소득은 영동군내 직장인 평균 연봉보다 높은 편이다. 50대 이하 귀농 가구의 꾸준한 증가도 포도 농사와 연관

이 깊다. 그 밖에 오리 가공공장, 삼양화학공업도 노천리 젊은 층의 경제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ABSTRACT]

**A Condition and Transmission motivity of the Village ritual in
Nochun-ri, Maegok-myeon, Yeongdong-gun, Chungbuk**

Choi, Jaun(Semyung University)

The Village ritual in Nochun-ri, Maegok-myeon, Yeongdong-gun, Chungbuk can classify into three periods. Favorable farming environment and High population density have an effect on Proceeding with the ceremony in the first period. Popular demand conformed with Buddhist temple conditions in the second period. Villagers organizational activation was the biggest motivation in the third period.

Sacrificial offering and Date of the community rites remain steadfast. The person in charge of the ceremony is fixed. The scale reduced from past years. Nevertheless, This tree playing role as a pivotal role. The economic power play a key role to proceeding with the ceremony. Residents have bond of sympathy to perform rite. Nochun-ri exists as an extension of the these cases.

Hyomoc(孝木) rite revived as a community rites in 2014. Hyomoc(孝木) have a close relation with inhabitants. Villagers take care of Hyomoc(孝木) consistently. Residents regarding Hyomoc(孝木) as a patron saint. There are various Community organizations which are boosted. These organizations are the driving force of the rite. Because of solid economic foundation

native who is Under 50s can raise a family in hometown. Samyang chemical industry, Duck processing plant and Grape farming are help to economic life of the residents.

Key words: Village ritual, a Village society, Hyomoc(孝木), Village guardian deity, Community organization, The basis of economic activity

[참고문헌]

■ 논문

- 권선경, 「도시화에 따른 마을신앙의 변화와 전승 방향」, 『고전과 해석』23집, 고전
문학한문학회, 2017, 37-64면.
- 김월덕, 「정읍지역 마을굿의 지속과 변화의 전개양상」, 『국어문학』45, 국어문학
회, 2008, 129-144면.
- 김재리·박지숙·안나용, 「당산동 부군당굿의 보존과 전승에 관한 문화기술학적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지』제14권, 한국무용기록학회, 2008, 101-128면.
- 김종대, 「새로이 창출된 마을신앙의 전승 방식과 그 기능변화」, 『어문논집』50, 중
앙어문학회, 2012, 311-340면.
- 김종대, 「양평 성덕리의 당문서를 통해 본 마을신앙의 전승 양상과 변화」, 『비교민
속학』59, 비교민속학회, 2016, 265-293면.
- 김태우, 「도시지역 공동체의례 주제 집단의 대응전략과 전통의 현대화」, 『한국민
속학』48, 한국민속학회, 2008, 141-178면.
- 박지애, 「경북지역 동제의 특징과 전승 실태」, 『영남학』제11호, 영남문화연구원,
2007, 231-262면.
- 박종오, 「주체 변동에 따른 공동체의례의 변화」, 『도서문화』35, 목포대학교 도서
문화연구원, 2010, 187-214면.
- 박홍주, 「부서마을 당산제의 변화 양상에 나타난 문화의 집변 현상」, 『한국민속
학』61, 한국민속학회, 2015, 205-234면.
- 서해숙, 「공동체문화로서 마을신앙의 활용과 의미 구현」, 『남도민속연구』제18집,
남도민속학회, 2009, 139-166면.
- 이경민, 「서울 근교 마을의례의 실천과 지속」, 『서울민속학』2, 서울민속학회,
2015, 159-216면.
- 이창언, 「촌락공동체신앙 전승의 현재적 의미」, 『민족문화논총』49, 영남대학교 민

족문화연구소, 2011, 219-239면.

정형호, 「20c 용산 지역의 도시화 과정 속에서 동제당의 전승과 변모 양상」, 『한국민속학』41, 한국민속학회, 2005, 419-457면.